

2015년 영국 영화산업 결산



2015년 영국 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 영국통신원 최상희

발행인 김세훈

발행일 2016년 4월 15일

-

영화진흥위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층, 14층

전화 (051)720-4700 / 팩스(051)720-4849

홈페이지 www.kofic.or.kr

©영화진흥위원회, 2016

Contents

01

들어가는 글 / 1

02

제작 현황 / 5

03

극장 시장 분석 / 13

04

디지털 온라인 시장 현황 / 15

05

정책 동향 / 15

06

2016 년 영화산업 전망 / 16

07

자료출처 / 17

1. 들어가는 글

영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영국영화에 주어진 영화 세금 면제액은 2억 5,100만 파운드였으며 이로 인해 지난 해 한 해 동안만 10억 파운드의 직접 투자 효과를 창출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정부는 또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에서 제작된 220편의 영화가 세금 면제 신청을 했다고 발표했다. 영국영화협회(British Film Institute)의 CEO 아만다 네빌(Amanda Neville)은 "영국 정부의 세금 면제 혜택을 통해 1파운드 지출마다 거의 12파운드 50펜스를 창출한다."는 말로 세금 면제 혜택이 영국 영화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설명했다. 이 세금 면제 혜택은 문화 인증 테스트 혹은 영국 공동제작 협약을 통해 영국 영화로 인정받은 영화에 한해 주어지는 혜택으로, 2007년 도입됐고 2015년 4월 1일부터 예산의 규모에 상관없이 영화 예산의 25%까지 확대 적용됐다. 세금 면제 혜택 자격을 얻은 영화의 지출액은 2012년 12억 9,700만 파운드에서 2015년 16억 2,700만 파운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영국 영화산업은 제작 면에서는 편수가 급감했지만 그에 반해 제작비의 영국 내 지출은 미미하게 감소했다. 감소폭도 6%에 불과했을 뿐 아니라 2014년이 제작비의 영국 내 지출을 기록하기 시작한 1994년 이래 가장 제작비의 영국 내 지출이 높았던 해임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를 큰 하락이라고 보기 힘들다. 제작비의 영국 내 지출 비중이 높은 영화는 미국 스튜디오 제작의 영국영화로 편수는 많지 않지만 블록버스터급의 영화가 주로 제작되는 탓에 제작비 지출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편이다. 독립영화는 이와 반대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수의 영화가 만들어지는 경향을 띤다. 이는 2015년만의 특징은 아니고 전반적인 경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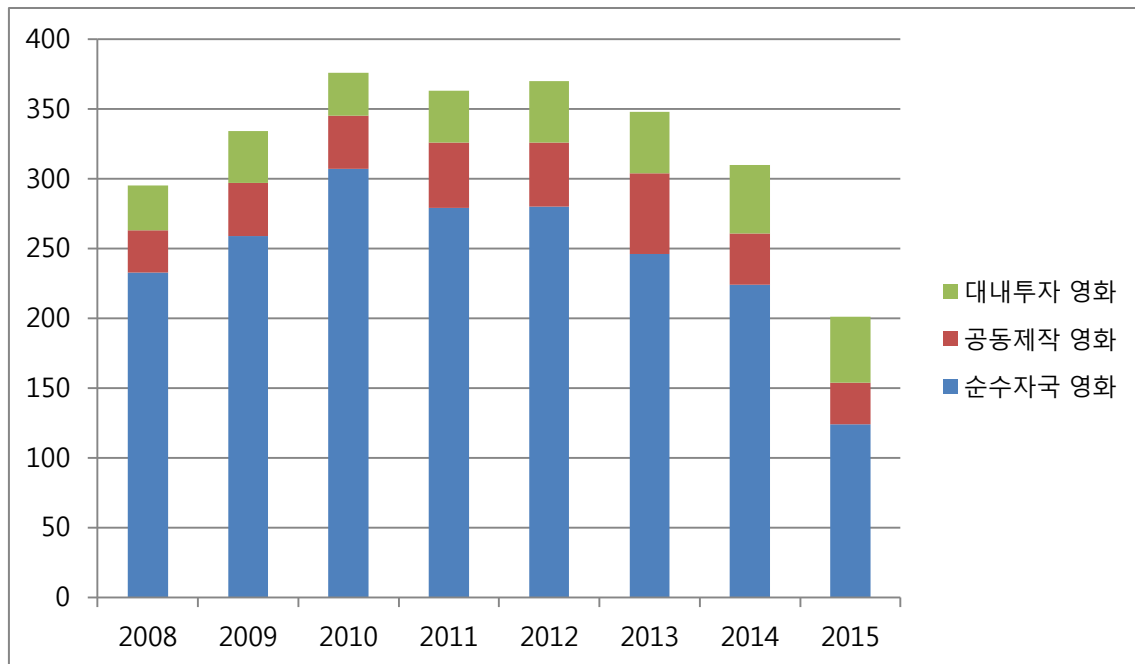
한편 2015년 영국 극장가는 100% 디지털화를 성취했으며 관객 수는 1억 9,000만 명을 돌파했다. 관객 수 1억 9,000만 명 성취에 크게 기여한 영화로는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Star Wars: Force Awakens)>. 2015년 영국 박스오피스는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가 휩쓸었다. 홈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는 디스크를 거의 따라잡을 정도로 디지털의 기세가 거셌다. 2015년에는 디스크의 비중이 52%, 디지털이 48%로, 아직 디스크의 비중이 조금 더 큰 편이지만 디지털의 급속한 성장은 곧 디스크를 따라잡을 기세다.

2. 제작 현황

1) 제작 편수

2015년 영국영화 제작 편수는 2014년보다 109편이 줄어든 201편으로 나타났다. 공동제작 영화는 37편에서 30편으로, 대내투자 영화도 49편에서 47편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영국 순수 자국영화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4년 224편에서 2015년에는 124편으로 100편이 줄어들었다. 영국 순수 자국영화 중 61편이 예산 50만 파운드 미만으로 제작되었고, 50만 파운드 이상으로 제작된 영국 순수 자국영화는 63편으로 집계됐다. 2015년 영국영화 제작 편수의 급감은 50만 파운드 미만의 예산으로 제작된 영국 순수 자국영화의 수가 급감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영국 제작 편수, 2008~201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공동제작 영화	30	38	38	47	46	58	37	30
순수 자국영화	233	259	307	279	280	246	224	124
예산 50만 파운드 미만	150	170	229	189	203	178	143	61
예산 50만 파운드 이상	83	89	78	90	77	68	81	63
대내투자 영화	32	37	31	37	44	44	49	47
예산 50만 파운드 미만 영화를 제외한 총합	138	152	131	153	137	142	155	130
합계	295	334	376	363	370	348	310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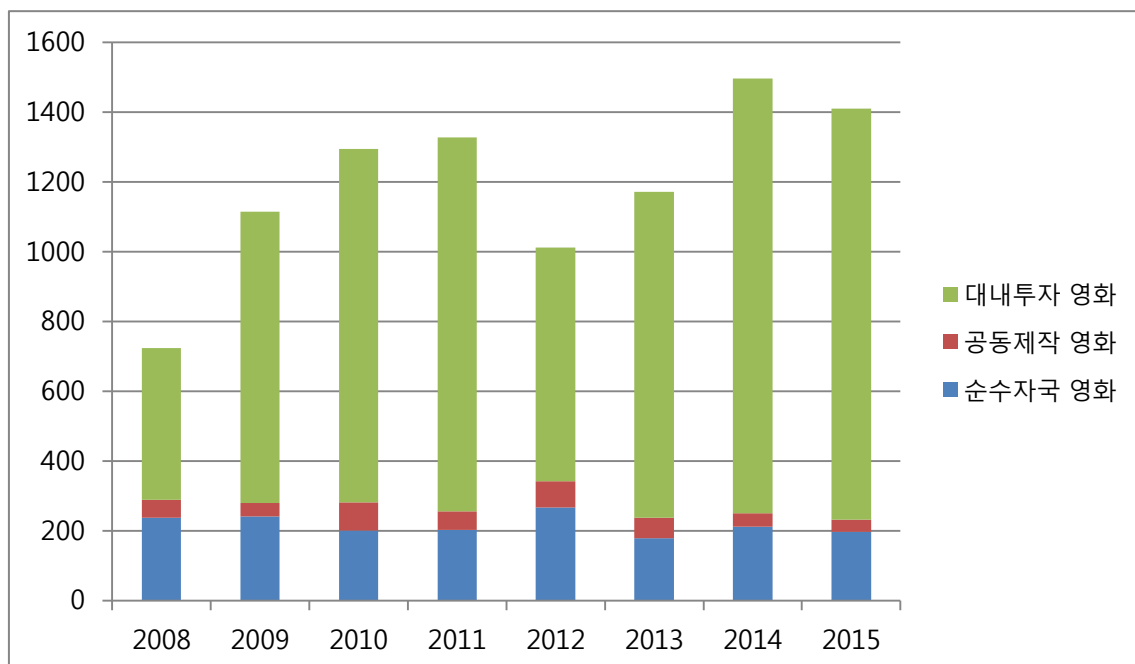
자료출처: 'Film, high-end television and animation programmes production in the UK: full-year 2015', BFI Research and Statistics, 2016년 1월 28일

2) 제작비

2015년 영국에서 제작된 201편의 영화가 영국에서 지출한 총액은 14억 1,000만 파운드로, 2014년의 14억 9,700만 파운드에 비해 6%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1994년 영국에서 지출한 예산 총액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지출액 총액이 높은 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대내투자 영화로, 총 47편의 대내투자 영화가 영국에서 지출한 총액이 전체 지출액의 83%인 11억 7,700만 파운드로 나타났다. 영국 순수 자국영화의 지출액 총액은 1억 9,790만 파운드로 전체 지출액의 14%를 차지했으며 공동제작 영화의 지출액은 3,520만 파운드로 전체 지출액의 2%에 불과했다. 대내투자 영화의 영국 내 지출액은 전년에 비해 7,040만 파운드가 감소했고, 순수 자국영화의 경우는 1,390만 파운드, 공동제작 영화는 2만 9,000파운드가 감소하는 등 2015년 영화 프로덕션의 영국 내 지출액 규모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영국 순수 자국영화 중 예산 규모가 50만 파운드 이상인 영화가 2015년 영국에서 지출한 총액은 1억 8,630만 파운드로 2014년의 1억 9,150만 파운드보다 3% 감소했다. 예산이 50만 파운드보다 적은 영국 순수 자국영화의 2015년 영국 내 지출액은 1,160만 파운드로 2014년 2,030만 파운드에 비해 감소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향후 최종 제작 편수 및 지출액 수치가 취합됐을 때 달라질 수 있어서 최종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

[그림 2] 영국에서 제작된 영화의 영국 내 지출액, 2008~2015 (단위: 100만 파운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공동제작 영화	51.7	38.6	80.4	52.4	75.2	59.5	38.1	35.2
순수자국영화	237.3	242.2	201.8	203.4	266.6	179.0	211.8	197.9
예산 50만 파운드 미만	15.2	17.9	25.2	20.3	21.4	20.5	20.3	11.6
예산 50만 파운드 이상	222.1	224.3	176.6	183.1	245.2	158.5	191.5	186.3
대내투자 영화	434.4	834.6	1,012.5	1,071.0	670.5	933.4	1,247.4	1,177.0
예산 50만 파운드 미만 영화를 제외한 총합	707.4	1,096.2	1,267.9	1,304.8	985.9	1,149.4	1,475.7	1,397.3
합계	723.4	1,115.4	1,294.7	1,326.8	1,012.3	1,171.9	1,497.4	1,410.1

자료출처: 'Film, high-end television and animation programmes production in the UK: full-year 2015', BFI Research and Statistics, 2016년 1월 28일

3) 미국 스튜디오 제작 영국영화와 영국 독립영화의 제작 편수 및 제작비

미국 스튜디오가 제작한 영국영화가 2015년 영국 내에서 지출한 예산 총액은 전체 지출액의 78%에 달하는 10억 9,420만 파운드였다. 이는 2014년의 10억 6,700만 파운드의 지출액으로 전체 지출액의 71%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조금 증가한 수치다. 영국 독립영화의 2015년 영국 내 지출액은 3억 1,590만 파운드로, 전년의 4억 3,030만 파운드보다 낮아졌다.

[표 1] 미국 스튜디오 제작 영국영화와 영국 독립영화의 영국 내 지출액, 2008~2015 (단위: 100만 파운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미국 제작 영국영화	428.7	814.4	985.4	1,038.9	647.7	777.7	1,067.0	1,094.2
영국 독립영화	294.7	301.0	309.3	287.9	364.6	394.1	430.3	315.9
합계	723.4	1,115.4	1,294.7	1,326.8	1,012.3	1,171.9	1,497.4	1,410.1

자료출처: 'Film, high-end television and animation programmes production in the UK: full-year 2015', BFI Research and Statistics, 2016년 1월 28일

한편, 2015년 미국 스튜디오가 제작한 영국영화 수는 23편이고, 영국 독립영화의 수는 178편으로 전체 제작 편수의 89%를 차지했다. 미국 스튜디오 제작 영국영화의 수는 2008년 이래 큰 변동은 없이 안정적인 편이나 영국 독립영화의 수는 2014년 289편에서 2015년에는 178편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그러나 저예산 혹은 초저예산 독립영화에 대한 정보가 모아지면 조금 높아질 수도 있다.

[표 2] 미국 스튜디오 제작의 영국영화와 영국 독립영화의 수, 2008~201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미국 제작 영국영화	23	26	18	19	15	17	21	23
영국 독립영화	272	308	358	344	355	331	289	178
합계	295	334	376	363	370	348	320	201

자료출처: 'Film, high-end television and animation programmes production in the UK: full-year 2015', BFI Research and Statistics, 2016년 1월 28일

3. 극장 시장 분석

1) 극장 현황

① 스크린 수

영국 극장가는 최근 디지털 스크린 설치에 많은 공을 들였다. 2008년 이래 디지털 스크린 수 변화 추이를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0%를 뛰어넘는 증가세를 보이다 2011년부터는 하락세로 돌아서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이는 스크린의 디지털화가 둔화되었다기보다는 이미 절대 수의 스크린이 디지털화된 결과 디지털화할 스크린 수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디지털화 속도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실제 영국 극장가는 2015년 완전히 디지털화가 이루어져, 전국 4,123개의 스크린이 모두 디지털 스크린인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스크린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극장의 멀티플렉스화도 점차 진행되어 2015년 영국에는 340개의 멀티플렉스 극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08년 멀티플렉스 극장 수와 비교할 때 25% 증가한 수치다. 한편 극장 수는 2008년 이래 꾸준히 낮은 수준의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 2015년에는 살짝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으나 눈에 띄는 현저한 수치의 증가는 보이지 않았다. 2015년 극장 수 집계는 현재 확정치 아니어서 추후 증가 폭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표 3] 영국 스크린 수, 2008~201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극장 수	772	766	763	761	750	747	743	795*
전년 대비(%)		-0.8	-0.4	-0.3	-1.4	-0.4	-0.5	7.0
스크린 수	3,661	3,696	3,741	3,824	3,858	3,897	3,947	4,123*
전년 대비(%)		1.0	1.2	2.2	0.9	1.0	1.3	4.5
디지털 스크린 수	310	642	1,415	2,714	3,538	3,836	3,946	4,123
전년 대비(%)		107.1	120.4	91.8	30.4	8.4	2.9	4.5
멀티플렉스 극장 수	272	276	298	307	310	317	322	340*
전년 대비(%)		1.5	8.0	3.0	1.0	2.3	1.6	5.6

자료출처: Screen Digest

*가집계 수치

② 관람료

2015년 영국 극장 평균 관람료는 7파운드 21펜스로, 전년 대비 7.3%가 증가했다. 2006년 이래로 극장 평균 관람료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파운드가 오르는데 평균 4년 정도가 소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4파운드 87펜스였던 관람료는 2007년 5파운드대로 진입했고, 2011년 6파운드 6펜스로, 6파운드대로 들어섰다가 2015년 7파운드 21펜스로, 7파운드의 벽을 넘어섰다. 관람료는 꾸준히 오르는 추세에 있으며 상승폭에서만 매년 약간씩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표 4] 영국 평균 관람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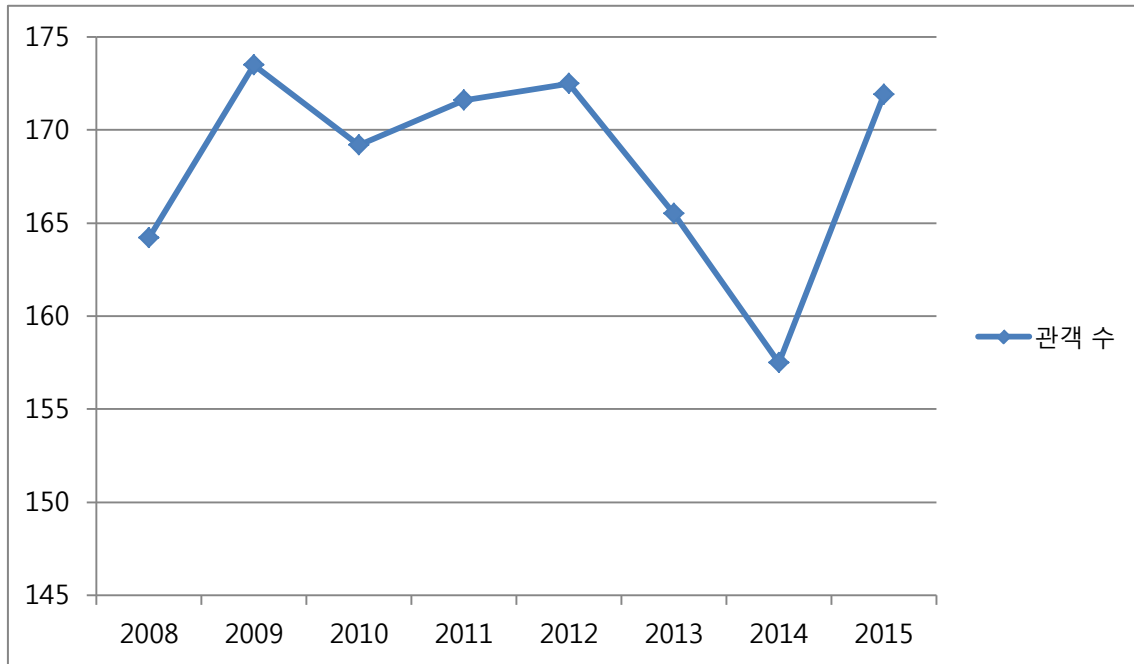
	평균 관람료(GBP)	전년 대비(%)
2006	4.87	3.3
2007	5.05	3.8
2008	5.20	3.0
2009	5.44	3.8
2010	5.95	9.4
2011	6.06	1.8
2012	6.37	5.1
2013	6.53	2.5
2014	6.72	3.1
2015	7.21	7.3

자료출처: UK Cinema Association

2) 관객 수

2015년 영국 극장 관객 수는 1억 7,190만 명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했다. 한편 2015년의 극장 매출은 12억 4,000만 파운드로, 전년 대비 17%가 증가했다. 2015년 극장 매출이 가장 높았던 영화는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로, 총 매출액이 약 1억 1,400만 파운드로 기록됐다. <007 스펙터(Spectre)>가 약 9,470만 파운드로 뒤를 이었으며, 약 6,450만 파운드의 극장 매출을 올린 <쥬라기 월드(Jurassic World)>가 3위를 차지했다.

그림 3] 관객 수, 2008~2015



자료출처: 'The UK box office in 2015', BFI Research and Statistics Unit, 2016년 1월 28일

2015년 월별 관객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월 관객 수는 8월을 제외하고는 전 월의 관객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 관객 수가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월은 <쥬라기 월드>와 <미니언즈(Minions)>, <007 스펙터>, <헝거게임: 모킹제이(The Hunger Games: Mockingjay Part 2)>가 개봉한 6월과 11월로 나타났다. 6월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4%가 증가했고 11월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4%가 증가했다. 3월과 4월 관객 수 증가는 <분노의 질주: 더 세븐(Fast & Furious 7)>과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The Avengers: Age of Ultron)>의 박스오피스 성공 덕분이다. 2014년 8월은 그 해 가장 관객 수가 많은 월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월드컵 이후로 미루어둔大作들의 개봉 러시로 인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매 신기록을 갱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의 개봉으로 2015년 12월의 관객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가 증가했다.

[표 5] 월별 관객 수, 2013~2015

	2013 (100만 파운드)	2014 (100만 파운드)	2015 (100만 파운드)	2014년 대비 변화
1월	17.08	15.19	15.39	1.3%
2월	13.96	14.33	15.16	5.8%
3월	10.89	10.36	11.54	11.4%
4월	11.89	12.68	15.13	19.3%
5월	15.61	12.60	12.67	0.5%

6월	13.03	10.40	13.25	27.4%
7월	14.32	13.28	15.87	19.5%
8월	17.64	17.07	14.37	-15.8%
9월	9.89	8.52	9.24	8.4%
10월	11.87	13.27	15.41	16.1%
11월	13.67	12.69	15.41	21.4%
12월	15.71	17.12	18.49	8.0%
합계	165.54	157.50	171.93	9.2%

자료출처: 'The UK box office in 2015', BFI Research and Statistics Unit, 2016년 1월 28일

3)관객 점유율

2015년 영국 독립영화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15년 중에 세 번째로 높은 11%를 기록했으나 전년 대비 점유율은 2001년 이래 최고치를 찍은 2014년의 16%에 비해 하락했다. 그러나 미국 스튜디오 제작 영국영화의 시장 점유율은 34%로, 기록을 시작한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미국 스튜디오 제작 영국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최고점을 찍을 수 있었던 데에는 영국 영화로 인정받은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와 <007 스펙터>,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성공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6] 미국 스튜디오 제작의 영국영화와 독립영화의 시장 점유율, 2001~2015

	미국 제작 영국영화(%)	영국 독립영화(%)
2001	21.2	3.8
2002	16.1	6.5
2003	12.5	3.4
2004	19.5	3.9
2005	26.2	6.9
2006	14.4	4.7
2007	21.8	6.8
2008	25.4	5.7
2009	8.5	8.2
2010	18.6	5.4
2011	22.6	13.1
2012	22.8	9.3
2013	15.5	6.6
2014	10.7	16.1
2015	33.9	10.6

자료출처: 'The UK box office in 2015', BFI Research and Statistics Unit, 2016년 1월 28일

4) 1인당 관람횟수

2015년 영국 관객들의 연 평균 영화 관람횟수는 2.65회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8.9% 증가한 수치지만 2008년 이래 영국 관객들의 연 평균 영화 관람횟수는 큰 변화가 없는 편이다.

[표 7] 1인당 관람횟수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인당 관람횟수	2.66	2.79	2.70	2.71	2.71	2.58	2.44	2.65
전년 대비(%)		4.9	-3.2	-0.4	0	-4.8	-5.4	8.6

자료출처: Screen Digest

5) 박스오피스

2015년 영국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영화 20편을 살펴보면 1위에는 약 1억 1,400만 파운드의 극장 매출을 올린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가 올랐고, 약 9,500만 파운드의 극장 매출을 올린 <007 스펙터>가 2위를, 약 6,500만 파운드의 극장 매출을 올린 <쥬라기 월드>가 3위를 차지했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과 <미니언즈>가 각각 4,834만 파운드, 4,771만 파운드의 극장 매출을 올리며 뒤를 이어 4위와 5위에 올랐다. 상위 20위권에 오른 영화를 배급사별로 살펴보면 1위에 오른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와 4위에 오른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포함, 총 5편을 박스오피스 20위권에 올리며 총 2억 4,352만 파운드의 극장 매출을 올린 월트 디즈니가 배급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고, 3위에 오른 <쥬라기 월드>를 비롯, 5위의 <미니언즈> 등 총 6편을 박스오피스 상위 20위권에 올린 유니버설이 2억 2,500만 파운드의 극장 매출로 배급사 부문 점유율 2위를 차지했다.

[표 8] 2015년 영국/아일랜드 박스오피스 상위 20위권

	영화 제목	제작국	박스오피스 총액(100만 파운드)	배급사
1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Star Wars: The Force Awakens)*	영국/미국	113.96	월트 디즈니
2	007 스펙터(Spectre)*	영국/미국	94.74	소니 픽처스
3	쥬라기 월드(Jurassic World)	미국	64.48	유니버설
4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The Avengers: Age of Ultron)	영국/미국	48.34	월트 디즈니
5	미니언즈(Minions)	미국/프랑스	47.71	유니버설
6	인사이드 아웃(Inside Out)*	미국	39.24	월트 디즈니

7	분노의 질주: 더 세븐 (Fast & Furious 7)	미국	38.64	유니버설
8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Fifty Shades of Grey)	미국	35.05	유니버설
9	헝거게임: 모킹제이(The Hunger Games: Mockingjay Part 2)*	미국/독일	29.05	라이온스게이트
10	홈(Home)	미국	25.38	이십세기 폭스
11	마션(The Martian)*	영국/미국	23.51	이십세기 폭스
12	사랑에 대한 모든 것(The Theory of Everything)	영국/미국	21.71	유니버설
13	신데렐라(Cinderella)	영국/미국	21.30	월트 디즈니
14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Mission: Impossible Rogue Nation)	영국/미국	21.18	파라마운트
15	빅 히어로(Big Hero 6)	미국	20.68	월트 디즈니
16	몬스터 호텔 2(Hotel Transylvania 2)*	미국	20.08	소니 픽처스
17	레전드(Legend)	영국/프랑스/미국	18.36	스튜디오 카날
18	테이큰 3(Taken 3)	프랑스	17.78	이십세기 폭스
19	피치 퍼펙트: 언프리티 걸즈(Pitch Perfect 2)	미국	17.41	유니버설
20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Mad Max: Fury Road)	미국/호주	17.40	워너브라더스

자료출처: 'The UK box office in 2015', BFI Research and Statistics Unit, 2016년 1월 28일

박스오피스 총액은 2016년 1월 17일까지의 집계를 포함한다.

*한 영화는 2016년 1월 17일 현재 상영 중

영국과 아일랜드는 배급상 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2015년 영국영화로 인증 받은 영화 중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영화는 2015년 영국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였고, <007 스펙터>와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뒤를 이어 2위와 3위에 올랐다. 2015년 영국 박스오피스 상위 20위권에 오른 영국영화 중 1,000만 파운드 이상의 극장 매출을 올린 영화는 총 15편으로 2014년 7편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표 9] 2015년 영국/아일랜드 박스오피스 영국영화 상위 20위권

	영화 제목	제작국	박스오피스 총액 (100만 파운드)	배급사
1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Star Wars: The Force Awakens)*	영국/미국	113.96	월트 디즈니
2	007 스펙터(Spectre)	영국/미국	94.74	소니 픽처스
3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The Avengers: Age of Ultron)	영국/미국	48.34	월트 디즈니
4	마션(The Martian)*	영국/미국	23.51	이십세기 폭스
5	사랑의 모든 것(The Theory of Everything)	영국/미국	21.71	유니버설
6	신데렐라(Cinderella)	영국/미국	21.30	월트 디즈니
7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Mission: Impossible Rogue Nation)	영국/미국	21.18	파라마운트
8	레전드(Legend)	영국/프랑스/미국	18.36	스튜디오 카날
9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Kingsman: The Secret Service)	영국/미국	16.59	이십세기 폭스
10	앤티맨(Ant-Man)	영국/미국	16.32	월트 디즈니
11	베스트 엑조틱 메리골드 호텔 2(The Second Best Exotic Marigold Hotel)	영국/미국	16.01	이십세기 폭스
12	손더쉽(Shaun the Sheep Movie)	영국	13.75	스튜디오 카날
13	더 레이디 인 더 밴(The Lady in the Van)*	영국/미국	12.31	소니 픽처스
14	터미네이터 제니시스(Terminator Genisys)	영국/미국	11.09	파라마운트
15	에베레스트(Everest)	영국/미국/아이슬란드	10.68	유니버설
16	숲속으로(Into the Woods)	영국/미국/캐나다	9.86	월트 디즈니
17	서프래제트(Suffragette)*	영국	9.86	파테
18	팬(Pan)*	영국/미국	9.12	워너브라더스
19	맨 프롬 UNCLE(The Man From UNCLE)	영국/미국	6.46	워너브라더스
20	성난 군중으로부터 멀리(Far From)	영국/미국	6.21	이십세기 폭스

	the Madding Crowd)			
--	--------------------	--	--	--

자료출처: 'The UK box office in 2015', BFI Research and Statistics Unit, 2016년 1월 28일

박스오피스 총액은 2016년 1월 17일까지의 집계를 포함한다.

*한 영화는 2016년 1월 17일 현재 상영 중 영국과 아일랜드는 배급상 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2015년 영국 독립영화 중 박스오피스 1위는 톰 하디가 주연을 맡은 액션 범죄 드라마 <레전드(Legend)>의 차지가 됐다. 1,836만 파운드의 극장 매출을 올린 <레전드>는 2015년 영국 전체 박스오피스에서도 17위에 올랐다. <베스트 엑조틱 메리골드 호텔 2(The Second Best Exotic Marigold Hotel 2)>와 <손더쉽(Shaun the Sheep Movie)>이 영국 독립영화 박스오피스 2위와 3위로 뒤를 이었다. 2015년 영국 독립영화 중 1,000만 파운드 이상의 극장 매출을 올린 영화는 총 4편으로 집계됐다.

[표 10] 2015년 영국 박스오피스 영국 독립영화 상위 20위권

	영화 제목	제작국	박스오피스 총액 (100만 파운드)	배급사
1	레전드(Legend)	영국/프랑스/미국#	18.36	스튜디오 카날
2	베스트 엑조틱 메리골드 호텔 2(The Second Best Exotic Marigold Hotel)	영국/미국#	16.01	이십세기 폭스
3	손더쉽(Shaun the Sheep Movie)	영국	13.75	스튜디오 카날
4	더 레이디 인 더 밴(The Lady in the Van)*	영국/미국#	12.31	소니
5	서프러제트(Suffragette)*	영국	9.86	파테
6	성난 군중으로부터 멀리(Far From The Madding Crowd)	영국/미국#	6.21	이십세기 폭스
7	브루클린(Brooklyn)*	영국/캐나다/아이슬란드	5.29	라이온스게이트
8	우먼 인 블랙: 죽음의 천사(The Woman in Black: Angel of Death)	영국/캐나다/미국#	5.02	이원 필름스
9	에이미(Amy)	영국	3.76	알티튜드
10	스푸크스: MI5(Spooks: The Greater Good)	영국	3.28	이십세기 폭스
11	엑스 마키나(Ex Machina)	영국/미국#	2.89	유니버설
12	우먼 인 골드(Woman in Gold)	영국/미국#	2.89	엔터테인먼트
13	맥베스(Macbeth)	영국/프랑스	2.86	스튜디오 카날

14	미스터 홈즈(Mr Holmes)	영국/미국#	2.63	이원 필름즈
15	페파피그: 황금 부츠(Peppa Pig: The Golden Boots)	영국	2.33	이원 필름즈
16	청춘의 증언(Testament of Youth)	영국	2.15	라이온스게이트
17	배드 에듀케이션 무비(The Bad Education Movie)	영국	2.04	엔터테인먼트
18	45년 후(45 Years)	영국	1.82	쿠존 아티피셜 아 이
19	블루밍 러브(A Little Chaos)	영국	1.58	라이온스게이트
20	로얄 나이트 아웃(A Royal Night Out)	영국	1.51	라이온스게이트

자료출처: 'The UK box office in 2015', BFI Research and Statistics Unit, 2016년 1월 28일

박스오피스 총액은 2016년 1월 17일까지의 집계를 포함한다.

*한 영화는 2016년 1월 17일 현재 상영 중

영국과 아일랜드는 배급상 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표시가 된 영화는 미국의 메이저 스튜디오 외의 영화사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미국 메이저 스튜디오 하의 독립
부서로부터 지원을 받은 영화

6) 공동제작 현황

2016년 영국에서 공동제작된 영화의 수는 15편이다. 이 중 유럽협약 하에 제작된 작품의 수가 가장 많은 10편이고, 캐나다/호주/프랑스/뉴질랜드/남아프리카공화국과 소수의 영화가 공동제작되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유럽협약 하에 제작된 영화 수는 총 122편이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호주/프랑스/뉴질랜드/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공동제작 영화는 총 25편이다.

[표 11] 협약별 공동제작 현황, 2007~2015

협약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유럽협약*	46	5	5	14	8	8	12	14	10	122
영국-캐나다**	5		1	2	3	1	4	1	1	19
영국-호주/ 영국-프랑스/ 영국-뉴질랜드/ 영국-남아공	5	3	2	3	3	4	1	-	4	25
합계	56	8	8	19	14	13	18	15	15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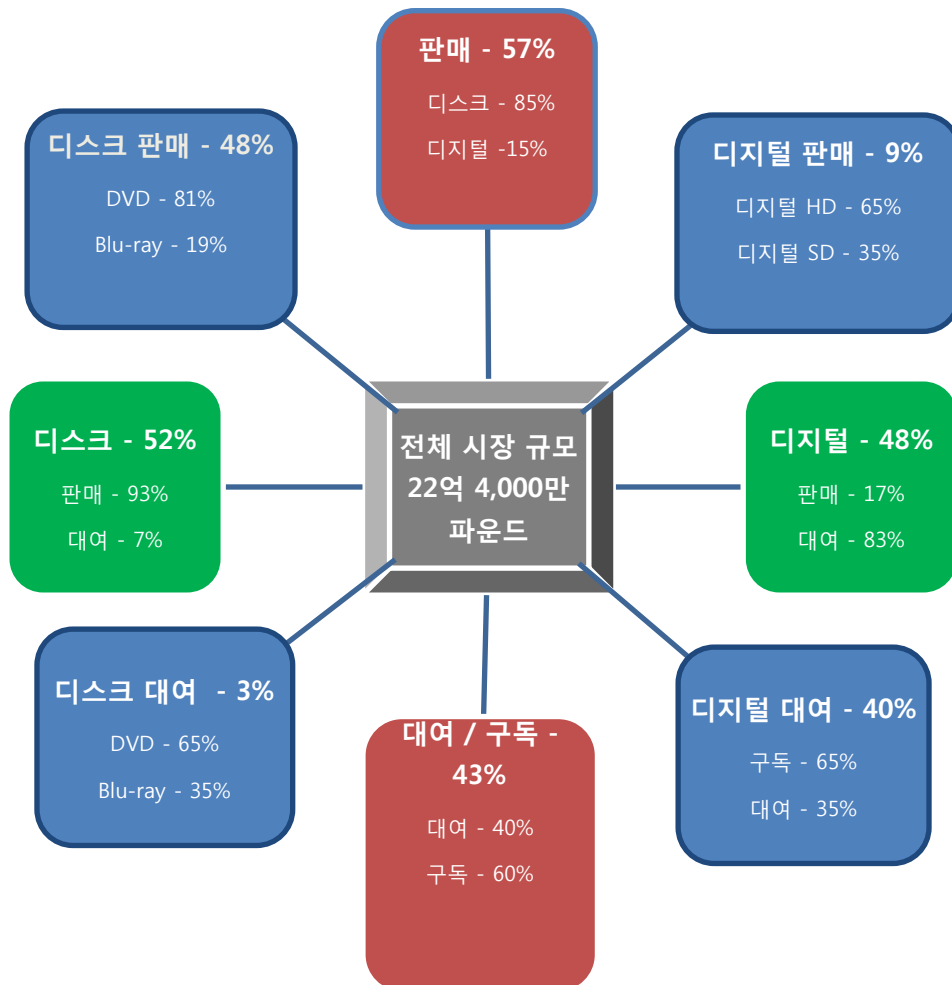
자료출처: 'British film, high-end television, animation television programmes, children's television programmes and

video games certification full year 2015, 2016년 2월 4일, BFI Research and Statistics Unit

4. 디지털 온라인 시장 현황

2015년 영국 홈 비디오 엔터테인먼트 시장 전체 매출액은 22억 4,000파운드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전반적으로는 판매가 대여보다 비중이 높아, 판매는 전체 시장의 57%를 차지했고, 대여/구독은 43%를 차지했다. DVD와 블루레이 같은 디스크와 디지털의 비중을 살펴보면, 디스크가 52%, 디지털이 48%로 디스크의 비중이 아직은 조금 높은 편이지만 디지털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디스크의 경우는 판매가 93%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디지털의 경우는 반대로 대여가 83%로 압도적이다. 디지털 판매의 경우 디지털 HD의 판매가 65%, 디지털 SD의 비중이 35%를 차지했다. 디지털의 경우 대여 중 구독의 비중이 65%, 대여는 35%를 차지했다.

[그림 4] 2015년 홈 비디오 엔터테인먼트 현황



자료출처: BRITISH ASSOCIATION for SCREEN ENTERTAINMENT

최근 5년간 소비자들이 극장을 가거나 디스크를 구매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오가며 콘텐츠를 구매하는 비율이 2011년 2.4%에서 2015년 10%로 4배나 증가했다. 또한 소비자가 극장을 가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사되 디스크를 사지 않는 경우가 2011년 1.5%에서 2015년 8%로 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들의 화면 퀄리티에 대한 취향은 점점 높아져 영화를 디지털 다운로드하는 경우 3분의 2 이상이 HD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는 DVD 구매의 경우 80%가 일반 화질 포맷을 선택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전세계적인 데이터 제공사 IHS는 아이튠즈(iTunes), 스카이 스토어(Sky Store), 아마존(Amazon), 톡톡 스토어(Talk Talk Store), 구글 플레이(Google Play), 우아키(Wuaki) 등의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다운로드가 2015년 12%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 또한 넷플릭스(Netflix),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Amazon Prime Video), 나우 TV(Now TV) 등의 구독제 서비스가 전년 대비 45% 증가했을 뿐 아니라 구독제 서비스(sVoD) TV 플랫폼 또는 웹을 통해 VoD 구매도 2015년에 19%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수치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디지털 다운로드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구독제 서비스의 이용 증가 등 디지털을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음을 알려준다. 홈 비디오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디지털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5. 정책 동향

영국에서 제작되는 영화 프로덕션에 25%까지 주어지는 영화 세금 면제 정책은 2016년에도 계속 적용된다. 영화 세금 면제 정책을 통해 영국 영화산업이 영국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체감한 영국 정부의 영국영화계 지원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 이 영화 세금 면제 정책은 애니메이션과 텔레비전 드라마에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영화 및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프로덕션이 영국에서 제작되어 영국 영화산업에 기여하리라는 영국 영화계와 영국 정부의 기대치도 높은 편이다.

6. 2016년 영화산업 전망

2016년 영국 영화산업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낙관적이다.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출연하는 <닥터 스트레인지(Dr Strange)>와 <스타워즈(Star Wars)> 시리즈의 다음 편 등 대작들이 개봉 대기 중이어서 박스오피스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편이다. 영국 정부의 세금 면제 정책의 긍정적인 영향은 계속 이어져 영국에서 영화를 촬영하고자 하는 대작들의 스튜디오 예약율도 높다. 파인우드 스튜디오(Pinewood Studios), 엘스트리(Elstree), 3마일즈(3Miles), 드래곤 스튜디오(Dragon Studios), 타이타닉 스튜디오(Titanic Studios) 등 영국 영화촬영소에 대한 수요는 상당하여 2016년 영국에서의 영화 제작에도 청신호가 비치고 있다.

한편 2016년에는 홈 비디오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꾸준히 증가해온

디지털에 대한 선호도가 2015년에는 DVD와 블루레이 같은 디스크 판매 시장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2015년까지는 디스크에 대한 선호도가 52%로, 48%를 차지한 디지털을 조금 앞지르는 상황이긴 하나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구독제 서비스와 디지털 다운로드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들의 디지털 구매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DVD 및 블루레이 등 디스크 판매시장이 2015년까지는 홈 비디오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디지털 매체가 홈 비디오 엔터테인먼트 시장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입증한다. 디지털 매체의 이 같은 급부상은 영국 홈 비디오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고, 이 같은 최근의 추세로 보아 2016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서비스가 디스크를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16년은 영화계가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영화에 좀더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현상을 보게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Wired.co.uk가 발표한 보고서 『The WIRED World in 2016』에 기술된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가상현실이 비디오 게임에 주로 활용되고 있지만 2016년 상반기에 오쿨러스(Oculus)를 비롯한 가상현실 헤드셋이 출시되면서 엔터테인먼트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상현실 헤드셋 판매가 2016년에 1,220만 개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이전에는 ‘영화’가 시청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영화는 시청의 범위를 넘어서 ‘경험’하는 대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LA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가상현실 프로덕션 회사 VRSE.works의 설립자 크리스 밀크(Chris Milk)의 주장이다. 그런 맥락에서 할리우드의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가상 현실에 대해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선댄스나 트라이베카 같은 영화제에서 독립영화인들이 제작한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혁신적이고 수준 높은 콘텐츠들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가상현실이 영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져 있는 분위기다.

영국영화의 수출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미국이 영국영화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지만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영화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영국 영화계는 주목하고 있다. 특히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영화계와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영국 영화계에 감돌고 있다.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영화계에 영국영화의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다. 또한 영국 정부의 지원 하에 영국영화협회(BFI)가 중국과 공동제작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 2016년에는 영국과 중국의 영화계 간의 교류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7. 자료출처

'Film, high-end television and animation programmes production in the UK: full-year 2015', BFI Research and Statistics, 2016년 1월 28일

'Film, high-end television and animation programmes production in the UK: full-year 2015', BFI Research and Statistics, 2016년 1월 28일

'The UK box office in 2015', BFI Research and Statistics Unit, 2016년 1월 28일

'UK: digital cinema release, Screen Digest', 2016년 3월 17일

'Average ticket price – 2000 onwards', UK Cinema Association

'A resilient industry consistently worth in excess of £2.2 billion', BRITISH ASSOCIATION for SCREEN ENTERTAINMENT
<http://www.theknowledgeonline.com/the-knowledge-bulletin/post/2016/01/06/can-the-film-industry-become-even-bigger-in-2016>

'Why has the UK film industry been making waves worldwide?', Mark Williams, The Guardian, 2016년 1월 15일
<http://www.theguardian.com/small-business-network/2016/jan/15/film-industry-export-creative-industry-movies>

'Virtual reality will transform cinema in 2016', Oliver Franklin-Wallis, 2016년 1월 27일, www.wired.co.uk
<http://www.wired.co.uk/news/archive/2016-01/27/virtual-reality-breaks-fourth-wall>